

1. 아래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학 -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
- ② 신석기 혁명 - 고든 차일드
- ③ 연속(발생)순서배열법 - 플린더즈 페트리
- ④ 폼페이 유적 발굴 - 주세페 피오렐리

2. 청동기시대 송국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지의 평면은 원형이 많으며, 내부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있고 그 양쪽에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 ② 청동기의 제작 기술이 최고도에 도달하여 비파형동검 이외에도 세문경, 농경문청동기, 검파형동기 등이 제작되었다.
- ③ 금강 유역에서는 석관묘, 석개토광묘, 단웅식 옹관묘 등의 묘제가 등장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 ④ 기원전 5세기 말, 송국리 유형이 일본열도에 확산되어 야요이문화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한반도 구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석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동부, 일본, 알래스카에 분포하여 호모 에렉투스가 동북아시아와 아메리카로 확산했음을 말해준다.
- ② 끊임없는 이동생활로 동굴이나 바위그늘 또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 임시 야영지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 ③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먹도끼는 '전형적인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고 연대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 ④ 털코끼리 화석뿐만 아니라 열대 혹은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한 마카카 원숭이 화석도 발견되었다.

4. <보기>의 유적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파주 대능리, 인천 운서동, 시흥 능곡동, 화성 석교리

- ① 신석기시대 패총(조개무지)으로 무덤과 인골이 확인된 유적이다.
- ② 상당한 수의 주거지를 가진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다.
- ③ 불에 탄 조, 기장과 함께 경작 유구가 확인된 유적이다.
- ④ 신석기시대 말기의 주거지 유적으로 유구가 한두 기씩 산재되어 있다.

5.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 ②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는 세장방형이나 장방형인 것이 많다.
- ③ 마을 안팎에는 생산 시설, 저장용 지상 건물, 광장, 의례 공간 등의 생활 시설, 환호나 목책같은 방어 시설, 동물을 잡기 위한 함정과 무덤이 배치되었다.
- ④ 해안 유적에서 발견되는 해양어로용 낚시의 종류로는 외낚시와 역(逆)T자형 낚시가 있다.

6. 원삼국시대 중부 지역의 중도(中島) 유형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석분구묘는 중부 지역, 특히 임진강과 한강 중상류 유역에서 강안 사구에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 또는 2~3기 정도로 축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② 마을 유적은 대부분 하천 주변의 충적지와 해안 사구에 분포한다.
- ③ 마을 유적에서 돌출된 출입 시설이 있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른 시기에는 평면이 장방형이었지만, 점차 변화하여 백제 한성기에는 육각형 형태가 출현하였다.
- ④ 집자리 내부 바닥에 돌을 깔고 주위로 점토띠를 두른 부석식 화덕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외줄 구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7. 고구려 토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기에 유약을 바른 시유토기는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되어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② 대부분의 토기가 정선된 니질 태토를 사용했지만, 심발류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질 태토를 사용하고 석면을 보강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③ 아가리가 넓고 목이 긴 형태의 사이장경옹은 동체부가 가늘고 긴 형태에서 점차 둥근 형태로 변화했다.
- ④ 토기 표면을 단단한 도구로 문질러 시문하는 암문 기법은 중기 후반부터 나타나 후기를 거쳐 발해 토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8. 낙랑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관묘, 목곽묘, 전실묘와 같은 성인 무덤과 옹관묘, 와관묘, 전곽묘와 같은 유아 무덤이 알려져 있다.
- ② 낙랑고분에서 출토되는 칠기의 제작 기법 중 목심제는 나무로 형체를 만들고 표면에 포를 붙인 후, 여러 번 칠을 바르는 기법이다.
- ③ 토성리 토성은 대동강 하안단구의 자연 구릉을 그대로 이용하여 설치된 평면 부정형의 토성이다.
- ④ 낙랑토기는 오랫동안 한식(漢式)토기와 동일시되기도 하였으나, 형태 및 제작 기법에서 중국 한(漢)대의 토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종이 많다.

9. <보기>의 무덤 양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내부에 지상식 또는 반지하식의 횡혈식석실을 축조하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석실을 덮은 묘제이다.
- 석실은 깎은 돌로 쌓은 것과 가공석으로 쌓은 것이 있으며, 후기 벽화고분 중에는 내면을 곱게 갈아낸 판석으로 축조한 것도 있다.
- 벽화고분은 궁륭상천정, 고임천정, 계단식천정, 귀접이천정 등으로 천정을 높게 올려 쌓아 내부 공간의 확대를 의도하였다.

- ① 안악 3호분
- ② 강서 대묘
- ③ 덕흥리 고분
- ④ 평양 역전 동리묘

10. <보기>의 유적들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장수 남양리, 예산 동서리,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완주 갈동

- ① 신석기시대 말기 내륙에서 수렵채집민이 이합집산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 ② 비파형동검과 마제석검 등의 유물이 출토된 청동기시대 구획묘 유적이다.
- ③ 세형동검 등의 유물이 출토된 초기철기시대 무덤 유적이다.
- ④ 낙랑의 영향을 보여주는 칠기와 관련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다.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정지산 유적에서 조사된 (나) 유구는 사비도성과 익산, 순천 등 각지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 기능과 함께 출현 시기가 한성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지산 유적은 중앙에 대형 (나) 을 두고 주변을 목책 등으로 둘러싸고 있어 무령왕을 비롯한 왕족의 (다) 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나)	(다)
①	옹진기	기와건물	신전터
②	옹진기	벽주건물	빈전터
③	사비기	벽주건물	제사터
④	사비기	기와건물	빈전터

12. 현재의 지역명과 가야의 추정 정치세력, 대표적인 유적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해 - 금관가야 - 대성동고분
- ② 창녕 - 소가야 - 옥전고분
- ③ 고령 - 대가야 - 지산동고분
- ④ 함안 - 아라가야 - 도항리고분

13.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 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주 신촌리 9호분의 경우 완성된 고분을 다시 수직적으로 확장하여 옹관들을 상하로 매납했고, 원통형 토기를 분구 주위에 세워 묻었다.
- ② 나주 오량동 토기 가마군은 대형 옹관을 전문 제작하던 대규모 생산 단지로, 지반을 파 내려가서 연소실과 소성실을 단 없이 설치한 세장한 평면의 등요가 있다.
- ③ 대표 기종으로는 유공광구소호, 유공횡병, 개배, 자라병 등이 있는데, 이 같은 토기들의 성립에는 한성기 백제 토기,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 토기, 일본 고분시대의 스에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 ④ 함평 신덕 1호분에서는 끈환두대도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장식대도는 영산강 유역의 재지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문왕은 국력을 크게 고양시켰으니 스스로 불교의 이상적인 군주인 전륜성왕을 표방하고, 황상(皇上)이나 조고(詔誥)와 같은 황제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고구려왕들처럼 천손을 자칭하였다. 문왕이 사망한 뒤로는 내분이 빈번했다. 그러다가 선왕이 즉위 하면서 왕권을 재차 강화하여 중흥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요동 방면과 신라 방면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서 사방의 국경선과 5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확정하였다.

- ① 정혜공주 무덤은 당나라 고분과 유사한 지하식 전실묘로서 계단식 묘도, 석문, 연도, 현실로 구성되었고, 무덤 위에는 전탑을 쌓았다.
- ②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굴된 우물은 고르바트카 성터에서 발굴된 것과 유사하게 고구려식으로 축조되었다.
- ③ 고분은 토광묘-석축묘-전실묘 순서로 출현하였으며, 토광묘는 말갈, 석축묘는 고구려, 전실묘는 당나라의 전통을 반영하는데 중심지에서는 석실묘와 석곽묘가 중심을 이루었다.
- ④ 정선된 태토를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한 고구려계 토기는 환원염 소성해서 회색을 띠고,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장식하였다.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적을 창건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삼국유사』에 양 무제를 위해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 유적
- ㄴ. 출토된 석조사리감에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는 유적
- ㄷ. 출토된 사리기 표면에 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사리를 묻었다는 기록이 있는 유적
- ㄹ. 사택적덕의 딸이 정재(淨財)를 희사해서 절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는 유적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ㄹ - ㄱ - ㄷ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16. 신라의 적석목곽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왕릉은 산지에 독립된 구역을 형성하여 만들었다.
- ② 규모가 축소되고 부장품도 극히 간소화되는 등, 박장화 경향을 보인다.
- ③ 대형분은 목곽과 적석부 등 일체의 구조가 지상에 축조되었지만, 중·소형분은 지하에 토광을 파고 설치되었다.
- ④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를 세트로 한 특징적인 신라토기를 부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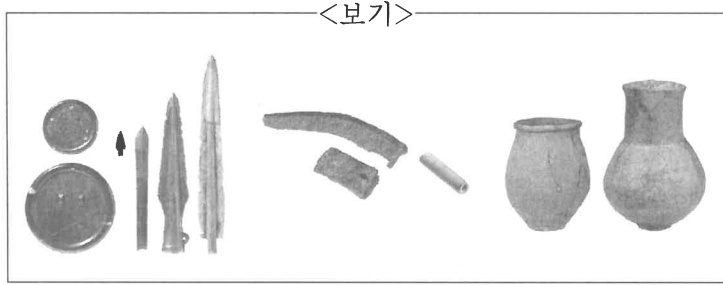
17.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해안 패총은 규모가 크고 때로는 주거지와 무덤, 집석 유구 등이 함께 발견되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 생활 근거지로 짐작된다.
- ② 연대도 패총과 옥지도 패총 등에서 출토된 인골에서 잠수병의 한 종류인 외이도골종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 잠수 작업은 남성이 전담하였다고 짐작된다.
- ③ 결합식 낚시바늘은 돌로 만든 축 부분과 뼈로 만든 바늘 부분으로 구성되며 오산리형으로 불린다.
- ④ 돌로 만든 어망추는 내륙 지역에서는 소형이, 해안 지역에서는 중형과 대형이 많이 출토된다.

18. 통일신라시대의 대외 교류나 문화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라스키노 평지성지 우물터에서 출토된 사이부일면 편호는 경주 화곡리나 울릉도 천부동 출토품과 유사하여 통일신라와 발해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경주 조양동 출토 삼채도기는 화장묘의 석함 안의 장골용기로 사용되었다.
- ③ 인화문은 통일신라에서 자체적으로 창안하거나 사물을 본떠서 만든 문양으로, 당나라 도자기나 금은기와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 ④ 752년에 작성된 『매신라물해』에는 신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신라가 당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교역망을 구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 <보기>의 유물들이 출토된 시기의 문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철기시대는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 시기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세형동검이 있다.
- ② 점토대토기는 기원전 5~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걸쳐 함평 초포리 등 남한 전역에서 발견되어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 할 수 있다.
- ③ 주거지 형태는 청동기시대와 큰 차이가 없지만 두만강 지역에서는 난방 기능을 발전시킨 구들 시설이 유행했다.
- ④ 부여 합송리와 당진 소소리 등지에서 주조 도끼와 끌, 첩두기가 출토되어, 남부 지역에서도 철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보급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 <보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유적은 거대한 복합 유적으로 삼각산에서 영산강 서안을 따라 뻗어 내린 구릉의 끝자락 일대에 위치한다. 1963년 삼불 김원용 선생의 조사,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의 긴급 조사를 통해 대규모 복합 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유적은 학술적·문화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2년 사적 제375호로 지정되었다.

- ① 팽이, 고무래, 따비, 절구공이 등 다양한 목제품이 발견되었다.
- ② 몸통부에 맨 현(絃)을 타거나 켜서 소리를 내는, 나무로 만든 현악기가 발견되었다.
- ③ 새와 태양, 고사리 무늬 등이 장식된 새무늬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 ④ 멧돼지와 사슴의 견갑골을 주로 이용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뼈[卜骨]가 발견되었다.